

흔히 사랑을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의 몫으로 치부된다.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취급되지만 기실 사랑이란 연령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대상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시간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공간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사랑만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지나는 표제적인 특성이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갖추고 있는 조건 때문일 것이다.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사전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란 설명이 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몫이 틀림없겠다.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라고도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젊은이들만의 몫은 분명히 아니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사랑이라고도 했다. 봉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마음은 아니다. “사랑이 가치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라고도 한다.

얼마 전 미국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77)의 사연이 보도돼 황혼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높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이근후열린마당의원

황혼의 사랑

아꼈다. 17년째 치매를 앓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2005년 7월 종신직 대법관을 사직한 오코너는 남편이 다른 여성(지매환자)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만 행복해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행복하다”는 말로 심경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황혼의 사랑이 아름답다거나 순애보라고 포장한 것이다.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아름다운 순애보란 이름을 붙여 보도할 만큼 희귀하다는 뜻일 것이다. “사랑에는 연령이 없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갈파한 말이다. 흔히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묘사되지만 평생의 말처럼 사랑은 생명력이다. 아주 젊은 의미의 이성적 사랑에서 넓은 우주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자기초월의미를 지닌 생명력의 원천이다. 무엇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생명력만 보아도 행복하다는 오코너 부인의 말

에 동참이다.

우리들이 유의해서 보아야 할 쉽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시작한 부인의 결단, 치매가 걸린 오코너의 병동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본 오코너 부인의 사랑 표현이다. 민감한 감정의 극단을 치닫는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증오를 지닐 법도 한 남편의 병동 사랑을 행복해 하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오코너 부인의 사랑 표현이다. 치매가 걸린 오코너의 사랑도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는 그 생명력에 순애보란 포장기 이루어졌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노년기의 사랑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가가 다를 뿐 그 근원적인 본질은 같다. 파이퍼 박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는 문화를 원한다면 나이든 이들의 사연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일생을 두고 연령구분 없이 사랑할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인식해 본다. 나이에 따라서 사랑을 인식하는 내용이나 실천하는 방법 등이 다를 뿐 노년기에는 사랑이 없다가나 사랑이 주체스럽다는 편견은 없어야 할 속제다.

불자의 눈

겨울 사찰 화재 주의를

겨울철을 맞아 사찰 화재 예방이 화두로 떠올랐다. 도심에 있던 산에 있던 사찰이 화재 예방에 남다른 관심이 요구되는 것은 정보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가 필수다. 최근 낙산사 원불교전과 종무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며 사찰의 화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해인사는 11월 24일 낙성하는 비로전에 화재예방과 관련 상당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는 전각답게 열감지 시스템과 재난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와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격자리에 있는 고찰답게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소방장비를 제대로 정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체로 규모가 큰 전통사찰은 각종 교육과 지원을 통해 소방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러나 산악지역의 소규모 사찰들은 소방시설을 갖추는데 등한하기 일쑤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마저 무디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종단이 때에 맞춰 관련 공문을 보낸다면, 실질적인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법당을 비롯한 각 건물의 소방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조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우선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대선후보 ‘반쪽 토론회’ 유감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11월 21일 이뤄진 후보 토론회는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불교계와 ‘할 얘기’가 많은 후보로 꼽힌다. 이회창 후보 역시 급작스런 출마 이후 불교계에 이렇다 할 행보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계는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것을 묻고 그의 속내를 알고 싶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불참하는 바람에 후보들에게 불교관련 정책을 듣고 보다 견고한 공약을 이끌어 내려는 불교계의 바람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다소 맥이 빠진 가운데서도 정몽준 후보와 문국영 후보는 성의껏 토론에 임했다.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보며 유감스러운 점이 하나들이 아니었다. 우선 후보자들이 다 참석하지 않은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불교계나 후보 당사자나 획기적인 공약을 개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안으로 설왕설래되는 사안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논리로 일관한 이번 토론은 심기까지 한 느낌이었다.

아직도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는 대선전에서 불자들은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응적인 눈으로 후보를 살피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7. 공공장소 종교행위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시민은 종교오염 없는 쾌적한 공공장소 향유할 권리 있어

공공장소나 공공자원이 특정종교의 선교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특히 기독교의 무리한 전도활동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겨야 할 공공장소마저 많이 오염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덕분에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오던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예배를 시민의 기본권 되찾기 의지로 공식 중단시킨 첫 사례이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국립대 내의 특정종교 시설도 건설수에 올랐다. 2001년 3월 서울대학교가 20평 정도의 교내 방갈로 시설을 세미나실 명목으로 서울대기독교수련회에 배정한 것이 올해 1월 한국일보에 보도됨으로써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독교회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기도·종교교육 등 실질적으로 종교활동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수도 요금 등 유지비용까지 서울대측이 부담해왔다고 알려져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민원 공문에 서울대측이 당초 배정 목적에 맞게 세미나 공간으로만 사용할 것, 인근 천문대 등 타기관의 연구에 지장을 주는 기도행위 등 금지, 그리고 종교시설로 인식되는 입간판 등 제작·설치 금지 등을 약속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수면 밑으로 잠기기는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세미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더 본격적으로는 국립대학 내에 특정종교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아직도 여전한 남아 있다.

공공개념의 이해수준은 지적 수준이나 사회

적 지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가보다. 가진 영부인이 되려는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11월 중순 시내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교인들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교회를 지으라고도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청와대 전체가 교회가 된다. 요즘 오히려 기독교가 역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까지 실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 전 한겨레신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한 ‘시내 변화가나 전철역 등 통행이 많은 곳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종교전도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91.4%가 “시민불편, 소음공해나 단속해야”라고 답했고, “종교탄압이므로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종교오염 없는 쾌적한 공공장소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또 청와대나 국립대 같은 상징성 있는 공적 장소가 특정종교인들의 예배 장소로 변질되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서울역·전철역·공원·학교 앞·길거리 등에서 자신들의 종교전선을 위해 타인들의 쾌적한 삶을 빼앗는 무례한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자들 중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5인이, 갑자기 교인들이 찾아와 큰 소리로 예배를 보는 것에 대해 “그 종교의 교인이 아니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예배를 강행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서는 ‘유치인 인성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매주 수·일요일 특정교회와 방문 및 종교의식을 허용해 왔다고 한다. 난처해진 경찰서가 공개적인 예배를 중지하러 하자 교회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단위 경찰서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 공지 및 동의 없이 유치인에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

며, 유치인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식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기본인데, 폐쇄되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종교의식은 특정종교의 종교인 이 아니거나 종교의식을 원치 않는 유치인들에게 특정종교의 강요가 되며, 큰 소리로 예배를 보는 경우에는 소음 및 종교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0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그 후 유치장의 공개예배를 중지하라는 경찰청장의 공문이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오랫동안 막무가내로 해오던

탈종공고

● 주 지 : 해 초
● 사찰명 : 용화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2리 665-1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을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1주: 목통증, 팔뚝, 신경과민,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목덜미가 뻣뻣함
- 2주: 상肢, 폐, 간장, 위장, 소장, 위장장애, 소장
- 3주: 변비, 오줌, 관절염, 좌골신경통, 하지순환장애, 생리통
- 4주: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장애
- 5주: 미장, 지장, 요리배의 통증

특전 속성 반

수료지는 분별회, 단종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2007년 12월 11일부터 (4주간)
-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체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